

## **들으라 이스라엘** © 2005 년 1 월 아세르 인트레이터

역사상 가장 큰 계명은 “들으라” 곧 히브리어로 “세마”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지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 신 6:4-5

이 구절은 3천년 동안 유대 민족이 외쳐온 구호였습니다. 홀로코스트를 직접 목격한 어떤 이는 유대인 부모가 나찌 군이 기관총으로 쏘 죽이려 다가오는 순간에 어린 자녀들을 팔에 안아 들고 그들에게 속삭이더니, 하늘을 가리키며 큰 소리로 “세마 이스라엘”을 읊던 모습을 전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저는 “들으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의미가 종교적 논란으로 불투명해졌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손을 이마에 대 가운데 세 손가락은 위로 향하고 엄지와 새끼 손가락은 양 눈초리를 향하게 하여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이것은 “샤다이”의 문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탈리트 즉 기도보로 머리 주위를 감싸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불 앞에 얼굴을 가렸듯 말이죠.)

### **듣고 순종하라**

세마라는 단어는 여러 언어에서 ‘듣다’로 번역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듣다’와 ‘순종하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으라, 곧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라는 말씀과 이해가 되면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의 의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조용기 목사가 자신의 목회 성공의 비밀이 단순히 ‘기도하고 순종하는’ 데에 있다고 한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듣는 마음을 개발하고, 그 분의 뜻을 이해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파수를 바로 맞추지 않으면,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에도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내면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계발되고, 또한 “**예수아께서 명한 모든 것을 순종할 때 (마 28:20)**” 계발이 됩니다.

믿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도덕적**이기도 하지만 **신비한**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으로, 가라앉는 모래나 물 없는 구름, 영이 없는 육신과 같은 것입니다. 유대 전통 가운데 유명한 구절은 들을 능력이 있기도 전에 순종하겠다는 헌신을 보여줍니다. 바로 **출애굽기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 **예언적 기름 부으심**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해 민감한 마음을 가진 작은 소년을 발견하십니다. 그 아이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예언을 받는 법을 몰랐기에 배워야만 했습니다. 늙은 제사장 엘리는 그에게 주님의 말씀하심을 감지하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삼상 3:9)**”라고 말하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시켜주는 마음의 자세이자 영적 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으로 **귀를 기울이고, 순종**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말씀하시게 할 순 없지만, 스스로 훈련하여 듣는 일에 민감하고 집중되게 할 순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선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송신기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리가 필요한 건 우리의 수신기입니다.

저희 간사들과 학생들은 매일 아침 예언적 찬양과 기도로 두 시간씩 훈련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적 은사를 개발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곳 이스라엘에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하는 예언자 세대를 일으키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다른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방언 가운데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저희는 이것이 일종의 “**예언자 학교 (삼상 10:5)**”라고 생각합니다.

### 왕과 같은 권세

또 다른 예는 유명한 솔로몬 왕의 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꿈에서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고 싶은지 질문 받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물질적 복보다 그는 이것을 구합니다. “**듣는<sup>[지혜로운]</sup>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상 3:9)**.” 여기서 듣는, 귀를 기울이는, 혹은 순종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레브 쇼메아**로, 앞의 두 구절에서와 같이 **세마**의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한번 들음의 도덕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듣는 마음이 있었기에 솔로몬이 존귀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세에는 청렴 (고결)함이 요구됩니다. 왕의 보좌는 공의로 세워집니다 (**잠 16:12, 25:5**).

이 모든 영적 권세들이 그에 상응하는 청렴이나 공의 같은 책임 없이 얻어질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의의 수준으로 통치를 배웁니다 (**롬 5:17**). 그리고 거룩한 영께서 우리에게 왕처럼 다스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 8:15**).

그래서 우리가 1)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든지 2) 예언적 은사와 기쁨 부으심을 받든지 아니면 3) 지도력과 왕 같은 권세를 키우든지, 모든 것은 듣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바람의 살랑대는 접촉에도 날리는 나뭇잎 (**요 3:8**)과 같이, 우리도 내면에 움직이시는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